

목양칼럼

어두움 속에서도 보시나요?

지난 수요일은 예고된 대로 폭설이 바람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 날 예정되었던 선교회 헌신예배와 지도원 성경공부 등을 연기하고 교역자들과 몇몇 성도들이 모여 수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폭풍우 속의 은혜” 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고 또 같은 주제로 토론도 하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물의 밝은 면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풍경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도 창조하셨습니다. 힘든 것도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속에서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 (이사야 45:7)

그 날 기도회가 끝나고 로비에서 헤어지는 시간에 그 날 헌신예배를 드리려던 선교회회원이 그 날 폭설로 헌신예배가 연기된 것에 대해 한 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회 헌신예배를 연기하셨네요. 미루어지는 것은 싫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회 헌신예배를 연기하셨네요. 우리의 준비가 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이 확실히 열려있는 것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희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특수교육부 (646)789-1118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직원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장혜영
			반주 / 최미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3월 11일
제 44-10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3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고국환 장로 3부 / 허경화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23:1-33	사회자
찬양	CHOIR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기도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47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359 / 1,3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서			

주후 2018년 3월 11일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박영권 장로 4부 / 송동울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347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23:1-33 에베소서 6:13-17	사회자
찬양 CHOIR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2부/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4부/ 복음으로 승리하라: 진리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수요 기도 예배

베드로 /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3/14/18) 사회: 박경수 집사

예배부름	사회자
경배와찬양	다같이
성경봉독	소철화 권사

누가복음 5:1-11

헌신찬양	베드로/마르다 선교회
기도	송동울 장로
말씀	오인수 목사

예수를 따르니라

헌금	중창	다같이
봉헌기도	채현주 권사	
찬양과 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3월 기도의 달 - 깨어 있어 기도하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2/19(월)-3/31(토)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회	3/14(수) 베드로/마르다 헌신예배
3/16(금) 구역예배	3/21(수) 청년선교위원회 헌신예배
3/30(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4/1(주) 부활주일
	3/25(주) 종려주일, 성례예배
	4/2-3(월-화) 여선교회 수련회

알림

- 제 31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안내 * 주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 기간: 3/31(토)까지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안내 * 2부 예배 후 오전 11:45 - 210호(학습), 213호(입교/세례), * 고등부 세례 학습: 부서에서 진행
- 지도원 성경공부가 권장 바이블 칼리지(QBC) 후 본당에서 오후 3:30에 있습니다.
-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위한 모임이 지도원 성경공부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 전교역자, 각부 부장단 이상(차량부, 찬양대, 봉사부, 방송부, 선교회회장단)
- 태아교실 안내 1) 대상: 모든 임신 가정 2) 장소: 영아부실 3) 등록비: \$20.00 4) 일시: 3/11, 18(주) 오후 3:30-5:30, 수료 및 만찬 3/22(목) 오후 6:00 5) 문의: 윤지영 권사
- 새성전 건축 및 선교를 위한 세무 봉사 1) 기간: 2/18(주)-4/8(주) 2) 매주일 오후 12:00-2:00 3) 장소: 205호 4) 문의: 정재운 집사. 접수 2주 후 세금보고 완성. 수익금 전액 새성전 건축 기금으로 봉헌
- 영, 유아, 유치부 부모 대상 새가족 성경공부가 오늘 3/11(주)부터 4주간 3부 예배 후 지하 B06 에서 오후 1:20-2:10 까지 있습니다. * 문의: 이명옥전도사, 박정봉 집사
- Ainos Youth Orchestra 기초반 모집 안내 토요일반, 주일반 문의: 최효진 권사, 김미연 집사
- 여선교회 수련회 안내 1) 일시: 4/2(월)-3(화) 오전 10:00-오후 3:30 2) 강사: 이동진 목사 3) 주제: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 4) 장소: 본교회 5) 회비: \$20.00 6) 문의: 계화사 전도사, 이영미 전도사
- 부활절 백합 꽃을 기증 받습니다. 로비에 신청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10)
- 경조부 주관 2차 묘지 분양 안내 3/18(주) 오전 10:00-오후 2:00까지 지하 친교실에서 받습니다. 확보된 묘지가 50기 입니다. 선착순 50명만 받습니다. 가격은 한기당 \$1260.00
- 3/17(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중고등부 (다음주: 유년, 초등부)
-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동은 집사, 한선일 집사

새가족

강사무엘 (청장년 3WCT4, 강은혜 - 청장년, 강예녹 - 유아, 강노엘 - 유치)

교우소식

병 환 임은식 권사 (IF10)께서 뼈 골절로 유니온 양로원 221호B에 입원하셨습니다.

사 임 배인구 전도사

금식기도자

월 / 최성은 남정현 남인화 신진숙
수 / 배강원 배혜리 노선희 고국환 고현숙
금 / 설정에 정미정 장은옥

주 / 최성은 심성문 남인화 신상숙
화 / 남궁혜령 이사강 이유숙 남궁영일 정경민
목 / 임순미 최화순 엔젤산도발 채송자 조선옥
토 / 이춘자 김덕순 장은옥

새가족 환영회

제 1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베드로/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

3/14(수) 오후 8:00

청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3/21(수) 오후 8:00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92	러시아어 예배	20	영어부	31	중등부	58
2부 예배	413	청년 선교부	86	유아부	38	고등부	55
3부 예배	314	QBC	249	유치부	34	청년 대학부	44
4부 예배	155	새벽 예배	2810	중국어 교육부	24	교회 학교 예배	458
영어 예배	188	수요 기도 예배	42	유년부	100	주일 낮 장년 예배	1781
중국어 예배	313	새가족 환영회	14	초등부	74	주일 낮 총계	2239

3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정길표 장로

헌신기도	홍승룡 장로	김용생 장로	정성호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계연란 권사	정혜자 권사	소은자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르다, 베드로 주일식사: 브리스가(다음주: 마르다)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교회)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두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문답 32)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옵니까? (지난 주 이어서)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려서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월- 사도신경/ 찬송가 449장 / 소요리 문답/ 창세기 2장 22-23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 끌어 오십니다. 이때, 아담은 여자를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 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나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것(마 19:19)입니다. 그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온 맘을 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찬송가 314장/ 소요리 문답/ 창세기 3장 1-7절

오늘 본문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로 죽음의 저주가 그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의심했기에 유혹에 흔들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찬송가 254장/ 소요리 문답/ 창세기 3장 15, 17절-21절

죄의 결과는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더욱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혹함을 입혀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획하신 때에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그 진노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은 그의 사랑과 은혜에 덮여지고, 마음이 깨어져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충성한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259장 / 소요리 문답/ 창세기 9장 8-13절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주실 때 반복하여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 못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한 그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찬송가 425장/ 소요리 문답/ 창세기 11장 1-9절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만들어진 우상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들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높이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435장/ 소요리 문답/ 창세기 12장 1-3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람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루실 소망의 삶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계속해서 실패하는 우리 인생과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거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